

함평 용천사·영광 불갑사 일대 잇단 가을꽃 축제



초가을 선홍빛으로 피는 꽃무릇의 꽃말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이다. 상사화와 엄연히 다른 꽃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하는 애절함을 담아 '상사화'라고도 부른다. <함평군 제공>

20~21일 꽃무릇 큰잔치

19~21일 상사화 축제

콘서트·공연·체험행사 다채

같은 듯, 다른 듯한 꽃. 늦여름과 초가을을 곁에 붙들고는 꽃무릇과 상사화를 만끽할 수 있는 지역 축제가 풍성하게 열린다.

함평 꽃무릇 큰잔치=국내 3대 꽃무릇 군락지 중 하나인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인근에서 '2014 꽃무릇 큰잔치'가 2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자연 100경(景) 중 48경인 전국 최대 규모의 꽃무릇 군락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해보면 꽃무릇 큰잔치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성춘)의 주관으로 드넓은 꽃 무릇 군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꽃무릇 큰잔치에서는 20일 기념식과 함께 제23회 면민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색소폰 공연 등 식전행사가 열리고 11시부터 기념식이 개최

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힐링 콘서트와 면민 화합 한마당 행사가 신명나게 펼쳐진다. 이튿날인 21일에는 관광객 장기자랑, 해보농약단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초대가수의 공연과 신나는 노래자랑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선전은 오는 13일 오후 1시 해보면사무소에서 개최되며, 참가신청은 이날 오전 12시까지 해보면사무소(061-320-2774)로 하면 된다.

이 밖에도 천연삼푸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의 체험행사와 함평 농산물 판매장, 먹을거리 장터 등도 운영된다.

영광 상사화 축제=곱게 핀 상사화도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제14회 불갑사 상사화 축제'가 오는 19~21일 사흘간 영광 불갑사 일대에서 열린다.

'아름다운 상사화, 그리움이 번진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꽃말과 관련된 애절한 사랑의 전설과 설화를 재연한 연극과 공연과 함께 상사화 향수 만들기, 나만의 컵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관광홍보관 등도 운영돼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 꽃무릇과 상사화 둘 다 잎 없는 채로 50cm까지 솟아 오른 꽃대 위에 꽃을 피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르다. 잎이 완전히 진 뒤에 꽃이 피는 상사화는 여름에 피고, 꽃무릇은 초가을인 백로와 추분 사이에 꽃을 피워낸다.

또 상사화는 봄에 잎이 돌아오고 여름에 꽃대를 올려 꽃을 피운다. 반대로 꽃무릇은 꽃이 잎보다 먼저 피어난다. 상사화의 꽃 색깔은 주로 연분홍이나 노랑이고, 꽃무릇은 아주 붉은 진홍색이다.

다채로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아쟁화, 수석 등의 전시회, 사랑의 정원만들기, '사랑을 고백하세요' 등 특별행사가 열린다.

이준근 상사화 축제추진 위원장은 "영광 불갑사 상사화 축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상사화 군락지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가을꽃 축제로,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함평=황은희기자 hwang@



서울 현장체험 학습에 나선 신안군 안좌고등학교 4-H 회원들.

섬 학생들 '진로 찾기' 서울 체험학습

신안 안좌고 4-H 회원 36명 2박3일 나들이

신안군 섬지역 고등학교 4H회원들이 서울 나들이를 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을배)는 "한국4-H본부와의 협력 속에 최근 2박3일간 안좌고등학교 4-H 회원 36명이 서울 일원에서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체험 학습은 도 시생활의 현장체험을 통해 도·농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 지역 청소년들의 삶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6~7명으로 조를 이뤄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이용,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공간과 대학교 등을 방문해 도시민, 외국인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별 과제를 진행했다.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박시영(2학년) 학생은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교를 방문, 대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장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무안 승달장학회에 인재육성기금 잇단 기부

지역인재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무안 기관·사회단체의 십시일반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무안노회(대표 김문선 목사)는 노회 연합부흥회를 마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승달장학회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앞서 지난달 생활개선회 무안군연합회(회장 윤미순)는 무안 연꽃축제에서 향토음식점을 운영해 수익금 중 100만

원을 승달장학금으로 기탁했다. 또 우리 음식연구회(회장 주금순)도 무안 연꽃축제 운영 수익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무안군은 승달장학회 기금 100여 원을 목표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독지가, 향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재)무안군 승달장학회는 지난 1994년에 설립되어 현재 51억40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함평보건소 혈관 건강 '레드 씨클' 캠페인

함평군보건소(소장 박성희)는 최근 군청에서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법을 알리기 위한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씨클 캠페인'을 벌였다. '레드 씨클'은 건강한 혈관을 상징한다.

군 보건소는 9월 첫째 주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군민들에게 혈압과 당뇨 등 자신의 건강수치를 제대로 알고 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

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군 보건소는 군민과 공무원들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홍보하고 급원 상담도 실시했다.

함평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을 통해 건강한 군민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소통과 화합 다진

문화예술 한마당 잔치

영광 군민의 날 행사

영광군은 지난 5일 영광 예술의 전당에서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예술의 한마당 '제38회 영광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준성 영광군수와 이계호 국회의원, 김양모 군의회 의장 등 각계 각층의 인사와 읍·면민, 향우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경연 및 공연행사 등을 펼쳤다.

'문화예술의 한마당, 해피(Happy) 영광'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군민화합과 행복한 영광만들기를 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날 군민의 화합과 결속과 소통의 자리는 물론 군민 모두가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가지는 뜻 깊은 문화 한마당이 됐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신안 갯지렁이 종묘 10만미 스페인 첫 수출

블루오션피아 종묘배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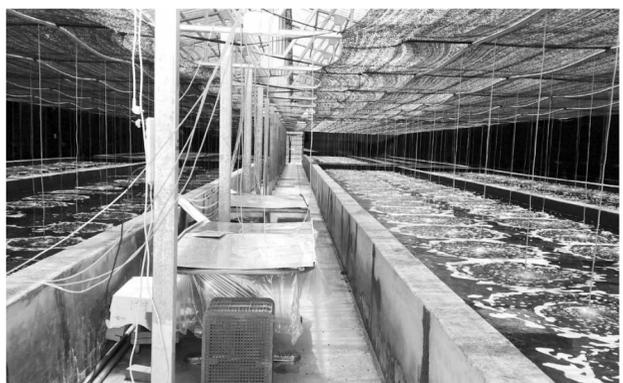
연말까지 300만미 수출

늪시 미끼로 쓰는 신안 갯지렁이가 스페인으로 처음 수출됐다. 신안군은 10일 "압해읍의 (주)블루오션피아가 종묘배양장에서 인공산란, 육성한 '바윗갯지렁이' 종묘 10만미를 국내 최초로 지난 1일 스페인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올해 말까지 300만미를 추가 수출할 예정이다.

블루오션피아 관계자는 "어린 갯지렁이 종묘를 해외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생존이 가능한 특수 운반물질을 개발, 우리나라에서 1만3000km 떨어진 스페인 남부까지 수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9926㎡에 모종동, 치종동 등 배양시설을 갖춘 블루오션피아는 연간 3000만미를 생산해 스페인을 비롯해 미국, 호주, 유럽 등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블루오션피아 조국일 대표는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파괴, 해양유류 오염 등으로 갯지렁이 개체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갯



스페인으로 수출된 신안 갯지렁이 양식장의 종묘장 내부. <신안군 제공>

지렁이 육상양식을 통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업자들이 갯지렁이 종묘를 구입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갯지렁이 종묘는 최고의 어류 미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 갯지렁이 종묘를 현지에 분조시키면 성장속도가 한국보다 1

년 이상 빠르고, 가격도 훨씬 좋아 상품성도 뛰어나다.

현재 신안군의 '바윗갯지렁이' 양식은 중도 1곳과 이밖에 수출을 달성한 압해읍 1곳 등 2곳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1개소가 추가될 예정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